

## // 줄잇는 온정 풍성한 설 //

전남사회복지협, 소외이웃에 '물품꾸러미'



함평다이너스티CC 아동시설에 위문품



여수성심병원, 저소득 가정 '사랑의 성금'



두암3동산악회 '독거노인 위안잔치'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진영)는 지난 6일부터 이를간 목포, 나주, 순천에서 '맞춤형 물품 제공으로 맛있는 겨울나기'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사회봉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설명절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 물품꾸러미'가 제작됐다.

물품꾸러미는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별인 사전조사를 통해 전남지역의 소외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채워졌다. 라면, 잡지, 식용유, 간장 등 생필품과 부침가루, 떡국용 떡, 사골국을 등 명절과 관련된 식품 등이다. 제작된 물품꾸러미는 전남지방총 500가구에게 전달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CC 차성만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민족명절인 설을 앞두고 최근 함평군 아동복지 시설인 '시온원'과 '샤론의 집'을 방문해 각각 라면 30박스씩을 전달했다.

또 함평다이너스티CC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다사랑 나눔회'도 최근 자매 결연을 맺은 함평군 학교연의 조손가정을 찾아 청소와 접수리를 해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다사랑 나눔회'는 함평다이너스티CC의 캐디, 직원 등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불우이웃돕기 봉사단체로 매달 자신의 급여에서 1만원씩을 기부하는 한편 경기적인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4년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두 가정에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지난 6일 여수성심병원(이사장 박순용)은 민족명절 설 맞아 병원 대강당에서 '사랑의 성금 나눔 행사'를 갖고, 지역소외계층 가정 등에 1억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심병원 임직원들과 복지기관 관계자, 수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병원측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가정 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성금 7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진료권 등이 전해졌다.

임용순 여수성심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소통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성심병원은 지난 17년동안 지역 소외계층 등에 총 19억원 상당의 성금을 후원해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두암3동산악회(회장 박인성)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6일 지역 내 소외 계층(장애인, 독거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독거노인 위안잔치'를 열어 차례상을 차려드리고 떡국, 다과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직접 마련한 공연과 노래자랑을 통해 명절 기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산악회 박인성 회장은 "인생의 뒤안길에서 와롭게 헤로 살아가시는 어르신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결성된 두암3동산악회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산행을 통해 회원들간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장만채 도교육감, 아동시설 7곳 위문



전남도교육청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 6일 아동양육시설인 강진자비원 등 지역 7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 최경주, 美 골프기자협 '자선대상' 수상

〈찰리 바틀렛 씽〉

고향 완도·美 허리케인 등에 성금…우즈 등 '골프 전설' 뒤이어 뽐혀



'완도의 아들' 최경주(43·SK텔레콤)가 미국 골프기자협회(GWAA)에서 주는 자선대상인 찰리 바틀렛 상의 올해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7일 발표했다.

GWAA 초대 회장의 이름을 따 1971년에 제정된 이 상은 아시아 선수가 받은 것은 최경주가 처음이다.

최경주는 2007년 최경주재단을 세워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돋는데 앞장섰다.

최경주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2000년 PGA 투어 진출 이후 이런 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상식은 마스터스 대회 기간인 4월에 대회장인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터에서 열린다.

2002년 5월 컵페 클래식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막본 최경주는 2005년 10월 PGA 투어 크

라이슬러 클래식 우승을 차지한 뒤 9만 달러(약 1억원)를 미국 한인 교회에 기부했다. 2009년에도 미국 허리케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역시 9만 달러를 내놨다.

또 2011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에는 미국 남동부 토네이도 피해자들을 위해 20만 달러를 퍼쾌했다.

일본에 진진 해일 피해가 커질 때 최경주는 10만 달러를 모아 성금에 보탰다.

더불어 지난해 9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 완도에 1억원을 기부했고 2011년 8월에는 재단을 통해 국내 독거노인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자선 활동에 앞장섰다.

이밖에 최경주재단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통해 주위를 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GWAA로부터 상을 받게 됐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연합뉴스

고석규 목포대총장 국·공립대 총장협회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이 최근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19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고 신임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목포대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2011년 광주전남지역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2012년 지역중심 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의천 조선대 경영대학원장 유공자 표창



전의천 조선대 경영대학원장(무역학과)이 최근 광주시 수출 141억 불 달성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전의천 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FTA 활용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습교육으로 인재의 현장 접목성을 증대시켜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인권평화재단 19~23일 인권강좌

광주인권평화재단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매일 오후 7시에 광주시 동구 가톨릭센터 7층에서 시민인권강좌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를 개최한다.

강좌는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우리 시대의 인권'(19일)을 시작으로 은우근 광주대 교수의 '교육과 인권'(20일), 가수 박문옥의 '노래 속의 인권 이야기'(21일),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의 '생활 속의 인권 이야기'(22일) 등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 인원투어 참가비는 1만원이다. 문의 062-234-273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반크, 720만 재외동포에 아리랑 세계지도 배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720여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 홍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반크는 다음 주부터 '한민족의 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재외동포 한국 홍보 사업을 시작한다"며 "먼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리랑 세계지도'와 '아리랑 카드' 1만 장씩을 인쇄해 전 세계 한인회와 유학생회 등 관련 기관과 커뮤니티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반크는 재외동포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아리랑 세계지도'는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벽에 부착할 수 있는 지도에는 한국사와 각국 재외동포들의 이주 역사, 한국어 첫걸음을 위한 한글 교육, 한민족의 유통이 담긴 아리랑을 담았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의미와 종류, 노랫말에 담긴 뜻을 소개한 '아리랑 카드'도 별도로 제작해 신청자에게 개인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반크는 재외동포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13분 분량의 '글로벌 코리아의 꿈'이라 제목의 교육 영상도 만들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보급한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우즈베키стан에서 '한민족의 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 장면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재외동포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 등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의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민족 꿈 모으기'를 주제로 한 '글로벌 코리안 홍보대사' 양성도 기획하고 있으며, 공모전과 전시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반크는 또 신(新) 헤이그 특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찾아가는 한민족 교실'을 개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동창동문회

▲북성중·제13회 동창회(회장 김성국) 월례회=13일(수) 오후 6시 진도회관 062-234-7892.

▲북성중·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섭) 월례회=18일(월) 오후 7시 수림식당 062-223-0028.

## 종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지역 이화회 2월 월례회(회장 이승봉)=12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5631.

## 일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234-1366.

▲병역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 3대 모두 현역의 병, 다=신청자격은 3대 모두 현역의 병,

모자,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 제출서류는 신청서·제작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FAX·우편, 표장은 20가문 선정하여 대통령표창 및 부상 500만 원 등.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420, 4322.

▲금영컨설팅·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재권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친환경농사사업=고연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와 경험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 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문 영농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정고객 및 자체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무료 알코올상담=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집

모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무료 알코올상담=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전문봉사단 교육 수강생=모집 분야는 수자침·동화구연, 교육일정

어(여행영어), 한시(한문), 웃음(건강)치료, 노인상답심리학, 원서접수는 15일(금) 오후 5시까지 062-223-1357, 010-2646-5023.

▲광주노인지도자대학 제27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남여(선수상 60명), 모집기간은 28일(목)까지, 수업시간은 매주 수요일(2시간) 062-652-7374.

▲2013 취업아카데미 연수생=광주·전남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상